

코로나 19 이후의 언컨택트 세상과 기독교의 미래 그리고 대비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 공식명칭 코로나 19, 처음 몇 달은 중국, 한국 등에서만 창궐하다가 미국, 캐나다 등을 번짐. 현재 660만 명, 40만 명 사망, 미국 190만, 11만 우리는 코로나 19가 곧 끝이 날 것으로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20년 6월 12일자 조선일보, <"코로나는 이제 시작일 뿐" 경고 흘러들지 말아야>

신종 코로나의 수도권 대유행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폐쇄에 이어 어제는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생활 방역 당시 하루 10~20명이던 새 확진자는 이달 들어 30~50명으로 오히려 배 이상 늘었다. 집단감염이 벌어진 곳은 서울만 11곳, 수도권 전체로는 20곳을 훌쩍 넘는다. 클럽과 콜센터, 교회, 병원, 물류센터, 운동시설, 방문판매센터, 군부대 등으로 잇따라 번지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새 확진자의 90% 이상이 수도권 환자다. 그런데 방역 당국의 추적 조사는 사실상 미궁에 빠진 상태라고 한다. 20곳 넘는 집단감염 사태 가운데 감염원이 누구인지, 어느 곳에서 감염돼 어디로 퍼졌는지 규명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방역의 연결고리가 끊겨 있다면 수도권 대유행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환자용으로 수도권에 1800병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중 800병상에 이미 환자가 입원해 있다. 그렇다면 당장 울여름에 병상 부족 사태가 닥칠 수 있다. 경증·중증 환자별로 분리 치료가 가능하도록 추가 시설을 준비하고 의료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팬데믹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올봄 하루 5만명 수준이던 새 확진자는 남반구 국가 등지에서 환자가 폭증하면서 최근엔 13만명으로 치솟았다. 사망자도 하루 5000명 안팎이다. 미국에선 누적 환자가 200만명을 넘었고 일부 주에서는 2차 대유행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시작 단계" "야구로 치면 2회 정도에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어제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수도권 감염 확산과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가 먼저다.

코로나 19 이후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이런 추세를 정리하고 특별히 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일단 몇 가지 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책들 소개에 모든 키워드가 들어 있다.

1. 코로나 이후의 세계(제이슨 생커, 미디어 숲)

부제목: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선점하라!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는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절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세계의 경제, 사회, 기업계에 밀어닥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는 무엇이고,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제시한다. 각 분야에 있어 대전환의 핵심을 짚어 누구나 낯설고 혼란스러운 미래 변화의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혼란을 헤쳐 나갈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코로나 쇼크로 모든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 교육의 미래는? 부동산, 농업, 미디어, 국제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여행과 레저 산업은 어떤 인식의 변화를 겪고 전망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궁금하다면 당장 제이슨 생커의 해안을 일독하기를 권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비즈니스, 경제, 사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위기와 불안, 불확실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일자리, 교육, 건강관리, 공급망 등을 비롯해 일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등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전 세계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에 위기관리가 쉽지 않을뿐더러 미래를 내다보기도 어렵다.

제이슨 쉐커는 오랜 기간 미래학자로서 연구해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낯선 풍경을 보여 준다.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 책은 산업과 경제, 사회를 가로지르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예측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손에 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명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기회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기회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장기적으로 공중 보건, 교육, 경제적 결과를 향상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 시장에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금융 시장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1500선을 깨고 내려갔다. 유럽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지수들이 급락하고 미국의 다우지수도 만 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2만 선이 붕괴됐다. 다행히 그 이후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이대로 안정을 되찾을지, 아니면 언제 다시 2차 폭풍이 몰아칠지 그 누구도 함부로 단언하기 힘든 현실이다.

쉐커는 미국 서브프라임 오토론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2008년 위기의 여파로 주택 모기지론은 규제가 이뤄져 왔지만 시장의 신용 확대 욕구가 오토론과 기업 금융으로 버블을 키웠고 이번 코로나19가 트리거(trigger,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 투자 관련 업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라면 반드시 경청해야 할 내용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미래학자 제이슨 쉐커의 제안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른 변화에 낯 놓고 있다가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에서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세 가지 트렌드가 나타나며, 재택근무가 다양한 분야에 파장을 미치는 등 이 책에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전망이 잘 정리되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장기적인 기대 및 전략과 통합하여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 손실을 불러온 이 위기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살며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든 부분에 코로나19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오래된 말이 있다. 위기라는 말은 기존 질서가 도전을 받아 해체될 위험에 빠졌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과거 질서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은 낙오할 것이고 재빨리 새로운 질서를 파악해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은 기회를 잡을 것이다. **위기를 활용하라!**

2.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저자 임승규, 장두석, 양석재, 조관자, 김재현, 한빛비즈 2020.05.15

1. 국제경제: 코로나19,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의 원인인가? 초인플레이션 사회
2. 국내경제: 전통적인 한국형 경제 성장모델은 쇠퇴하나? 양극화의 심화,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나는 제조업의 고도화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일자리 문제를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추세를 심화할 것이다.
3. 부동산: 코로나 위기에 서 있는 부동산, 지금이 변곡점인가? 부동산은 우리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골을 깊게 갈라놓았으며 이번 위기 또한 그럴 것이다. 부동산 투자 현명하게 해야 한다.
4.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나? 미래 생활에서 누구든 온라인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음식도 거의 다 배달

비대면 관계가 증가하는 미래에는 대면과 비대면의 영역을 3 대 7로 조율하면 좋을 것이다. 디지털 세대는 비대면 영역의 비율을 70%로 확장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50대부터는 비대면 소통방식에 능통하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사회적 활력을 얻고 제2의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도 인터넷과 SNS를 통한 비대면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만 뜻과 취미가 맞는 사람들이 서로 융합하는 사회 활동도 다양하게 개발할 것이다. 대면 접촉이 가능한 오프라인에서 동호인들이 모여 삶의 활력을 충전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즐겁고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온라인 사회, 인생의 황금 비율을 찾아라, 재택근무가 늘다 | 소비의 변화와 새로운 일거리 | 근로자 의식에서 프리랜서 의식으로 | 1인 가구, 지금의 절박함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

영상 콘텐츠 만드는 연예인 | 글로벌 사회는 증오 감정을 치유할 멘토를 기다린다, 교회의 역할

5. 의료: 성공적인 방역체계 이후, 의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해법은?

인공지능의 역할 | 의료 빅데이터 구축 | 앞으로 코로나 19 같은 것이 계속해 나타나 가능성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집단 면역이라는 이슈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일까? 집단 면역이란 용어는 애초에 자연 감염 현상을 일으키는 용어였다. 홍역과 관련해서 생긴 용어로 전체 인구의 60%가 자연 감염을 통해 면역을 생기면 그 집단에서 홍역이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집단 면역의 개념은 서구에서는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 집단 면역의 중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홍역과 같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인구의 60%가 면역력이 생겨야 종식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 면역의 핵심 포인트는 감염이 확산되도록 방지하지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현재의 코로나19의 치사율을 고려하면 감염이 확산되었을 때 많은 인구가 희생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반대하고 있다.

6. 정치사회: 연대할 것인가, 각자 도생할 것인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세계무역은 절반 이상 감소했고 실업자는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에 무차별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대공황에 의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무려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개인의 삶은 꺾였다. 희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를 슈퍼맨으로 보기 시작했다.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전체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등장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됐다. 세계대전이라는 큰 위기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했고 이는 냉전을 탄생시켰다. 불완전한 연대 속에서 '똥 가르기'를 하던 냉전은 1990년대에 붕괴됐고 탈냉전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각자도생의 시대는 열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자 패러다임은 전환점을 맞이한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으로 대표되는 '신케인스 학파'가 신자유주의를 몰아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주문했다. 미국 정치의 주도권도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각자도생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강력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우경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까?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연대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을까? 가능성이 반반, 여기서 중요한 것, 세계 정부의 통치자, 적그리스도의 등장 가능

7. 교육: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는?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는? 학 교육 혁신의 한 방향으로 온라인 교육 강화가 제시되었지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립대학들에게 온라인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 결과 형편이 어려운 일부 사립대학은 온라인 강의를 지원할 수 없었고 전적으로 교수나 강사 개인이 능력껏 알아서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제작한 후 탑재하도록 시켰다. 국립대도 국가로부터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 강의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온라인 강의 필수, 영어 국어 등 실험이 필요치 않은 과목들, 유명 교수가 한 번에 수만 명 강의 가능.

학교의 변화

학교 재발전 | 교사의 재발전 | 재택 온라인 교육의 방향 | 온라인 교육의 한계 | 스마트그형 교육 | 평생 교육, 교회도 여기에 맞게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전자 칠판 도입, 줌 사용해서 화상 교육,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전 학년 모두, 새 신자 교육 등)

3.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삶, 경제, 그리고 투자
저자 한국경제신문 코로나 특별취재팀 | 한국경제신문 | 2020.05.25

--- 「들어가며」 중에서, 삶의 방식은 한 번 바뀌면 이어지는 속성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PC에 익숙하지 않던 장년층이나 노년층도 이제 잘 다룬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기에 적응한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이 않을 것이며 세계질서는 영원히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 「1장 코로나 시대, 삶이 바뀌었다」 중에서

코로나19가 변이가 심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점도 백신 개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맞춰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변이가 생기면 백신 효과가 떨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갑자기 멈춰 백신 수요가 사라지는 것도 개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백신 개발 프로그램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유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에서 DNA 백신, RNA 백신, 유사체 백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백신 개발은 상당히 험난하고 먼 길”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집의 개념을 바꿔놓았다. 이제까지 집은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집은 사무실의 기능도 함께한다.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기업들이 조를 짜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기능도 바뀌고 있다. 이른바 ‘홈오피스’(home office)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직장인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학생들은 집에서 노트북, 태블릿PC로 학교 선생님과 학원 교사의 수업을 듣는다.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해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힘을 잃는다는 것을 뜻한다. 회사 바깥에서 개인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업무를 하는 만큼 근로 시간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기가 어려워져서다. 이에 따라 일한 양을 평가하는 기준도 근로 시간이 아니라 해결한 과업의 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전까지 많은 서구 국가에서 정부는 의심해야 할 대상이고, 대규모 공무원 조직은 비효율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을 맞아 정부는 생명과 일상을 지켜줄 유일한 버팀목으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릴리아나 메이슨 메릴랜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던) 레이건 시대는 끝났다”며 “정부는 근본적으로 나쁘다고 널리 받아들여지던 생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세계적인 증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나는 정부에서 나왔고, 당신들을 도우러 왔다’는 말이 더 이상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바로 여기에서 전체주의 정부 출현, 유발 하라리의 예측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 감시, 우리의 모든 정보를 컨트롤한다.

병으로 죽을래, 아니면 정보를 공개할래?

대다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며 정보 공개, 결국 인간을 옥죄는 시스템으로 갈 확률이 커진다.

각국 정부가 강화된 권한을 앞세워 자유무역 제한에 나서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점이다. 미국과 독일 등은 방역용 물품 및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해외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러시아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곡물 수출에 대한 통제도 시작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자유무역이 제한적으로 작동하며 경제 회복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강화된 정부가 여러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부 부채가 늘고 이는 세금도 늘어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투자은행 UBS는 “투자자들은 더 높은 세금을 비롯한 ‘재정적 억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덕분에 불평등이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전체주의 조장

코로나 발병 이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벌어졌던 수많은 정치적 오판들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과학에 더욱 의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과학을 무시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팬데믹이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 미디어 [폴리티코]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IAID) 소장으로부터 듣고 싶어 한다”며 “코로나19가 정치인들로 하여금 전문지식의 중요성을 인정토록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정치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종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과학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과학을 신봉한다.

결국 모임을 갖는 교회는 사회 사람들의 증오와 멸시의 대상

--- 「2장 코로나 시대, 경제가 달라졌다」 중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도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4월 13일부터 환자가 의사에게 받는 첫 진료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전화나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면 의사는 환자와 만나 진료할 때 받는 진료비(2,880엔)의 4분의 3 정도인 2,140엔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도 나섰다. 3월 30일 공공보험 메디케어를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입자는 6,000만 명에 이른다. 이전에는 정기 진료 환자만 제한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5억 달러(약 6,080억 원)다.

의료는 대표적 노동집약 산업이다. 환자 치료는 물론 병원 내 청소 등 대부분 업무를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업무 중 상당수가 비대면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병원은 매일 의사들이 모여 환자 사례를 공유하는 콘퍼런스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바꾸기도 했다. 병원 청소로봇을 들여놓는 등 로봇처리자동화(RPA) 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원도 늘었다.

쿠팡의 사례는 코로나19 시대의 소비 트렌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19는 기존 소비시장의 질서와 판도를 뒤흔들었다. 비대면 소비를 뜻하는 ‘언택트 소비’의 확산. 이 거대한 물결에 오프라인 유통회사는 속절없이 빨려들어갔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더 이상 유통산업을 주도할 수 없게 됐다.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한번 가속이 붙은 이 흐름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되돌리긴 힘들 전망이다. 쇼핑은 이제 ‘당연히’ 온라인에서 하고, 오프라인에선 가끔 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유통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가 간 연결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수전 올린 [뉴욕] 기자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코로나19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접혀 있는 것 같던 세계지도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수정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가던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여행 불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보여준 자국민 우선주의와 여행객 및 이민자를 향한 인종차별 등이 우리의 기억 깊은 곳에 남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러드 베이커 전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세계화 체제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사람들은 집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이 어찌면 마지감으로 베푸시는 은혜

4. 언컨택트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 코드

저자 김용섭 | 퍼블리온 | 2020.04.20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언컨택트’!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꿈꾸는 현대인의 욕망,

라이프스타일의 거대한 진화는 이미 시작됐다!

접촉 불안이 가져온 일상의 대전환기! 불안과 위협의 시대를 건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관심은 ‘언컨택트’에 집중되었다.

언컨택트는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욕망의 산물이자, 새로운 시대를 읽는 가장 중요한 진화 코드다. 언컨택트는 소비의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도, 종교와 정치, 연애를 비롯한 우리의 의식주와 사회적 관계, 공동체까지도 바꾸고 있다. 언컨택트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욕망과는 어떻게 연관되며, 비즈니스에선 어떤 기회와 위기를 줄지를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들여다본다.

기성세대식 회식 문화는 직장에 밀레니얼 세대가 많아진 지금 시대에선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과도 무관해졌다. 오히려 회식이 화합을 더 해칠 수 있다. 함께 하는 자리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술자리 중심의 회식 문화는 한계점을 맞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는 회식 문화가 저물어가는 데 썩기를 박았다. 오래전부터 비위생과 감염 문제가 내내 제기돼도 잘 고쳐지지 않았던 술잔 돌리는 문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이다. 많은 사람들은 술잔 주고받으며 끈끈하게 스킨십하거나 만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시대를 원하고 있다. 70~71p

타인과의 대면과 접촉을 피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면, 피하고 줄이는 게 언컨택트다. 무조건적인 단절이 아니라 피하고 줄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언컨택트 기술이자 서비스의 방향이다. 기술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를 통해 우리의 자유를 더 확대시켜준다. 결국 언컨택트는 우리가 가진 활동성을 더 확장시켜주고, 우리의 자유를 더 보장하기 위한 진화 화두다. 비대면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욕망의 문제다.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도 결국 우리가 가진 욕망이 바뀌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로 변화하는 것이다. 언컨택트는 욕망의 진화인 셈이다. 86~87p

집단주의적 문화가 퇴조하고 개인주의적 문화가 부상했다. 이런 시대 우리가 느슨한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변화된 욕망 때문이다. 혼자 사는 시대라서 오히려 새로운 연대가 필요해진 것이다. 고립되고 외롭고 싶은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필요시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고 싶은 것이다. 혼자서와 함께의 중간지점, 즉 혼자지만 가끔 함께가 되는, 서로 연결되긴 했지만 끈끈하진 않은 느슨한 연대인 것이다. 이런 욕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사람과의 관계는 과거와 같을 수 없다. 끈끈함이 주는 친밀함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도 동반된다. 이런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느슨한 연대에서 드러난 욕망이기도 하다. 언컨택트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욕망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가지는 장점은 일부 취하되, 그런 연결이 주는 부담스러움이나 복잡함은 털어내겠다는 태도가 '느슨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이기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태도다. 그리고 이건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이다. 240~241p

언컨택트는 단절이 아니라 컨택트 시대의 진화인 것이다.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연결과 교류가 되는 언컨택트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언컨택트 사회가 되어도 우리의 공동체는 유효하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란 것도 유효하다. 다만 사회적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연결되는 방식에서 비대면/비접촉이 늘어나고, 사람 대신 로봇이나 IT 기술이 사람의 자리를 일부 채울 수 있다. 263p

언컨택트 사회는 예고된 미래였지만, 코로나19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언컨택트 환경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이 언컨택트가 가진 문제를 급격히 노출시키는 계기도 되고 있다. 인간 소외와 새로운 갈등, 새로운 차별과 새로운 위협성, 결국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 사회는 언컨택트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는데 그 시기가 당겨지고 속도가 빨라졌다. 이미 시작된 언컨택트 사회, 이런 그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 이제 시작이니까. 299p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50년의 특징

1. 국제화
2. 도시화, 이것들이 다 무너진다.
3. 그리고 국가나 개인이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선다. 가장 큰 타격이 여행 관련 업
4.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 종교계

교회, 성당, 사원(이슬람, 불교, 유대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모여야 가능하다.

언컨택트 시대, 언택트, 컨택트리스 시대

한국 교회 역시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 등 코로나 19이후의 교회 회복 세미나, 7-800명 참석

가장 큰 관심: 인원의 회복

5.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현실: 언컨택트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여기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인원 수 회복에 집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회가 온라인 교육, 디지털 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성경과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즉 심방 중심/행전 중심의 기존 교회 패러다임으로는 코로나 19이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전 학년 교과 과정 온라인 교육, 주일학교를 못하는 교회가 숫자로 보면 과반수에 다다를 것이다.

새 신자 교육, 기존 신자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성경 이야기, 복음 이야기 등 온라인

이를 위해 전자 칠판 동영상 강의 등 세상이 하는 것 이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의 방송국이 되어야 한다.

교회와 함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경건의 묵상, 찬송, 기도, 설교, 강해, 주일학교 교육, 전도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우리 교회 전 회원이 이런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들 5권씩 교회에 비치하였다. 다음 주에 읽어보고 더 구매할 것이다.

집사, 지역 인도자, 교사들이 읽어야 한다.

우리 세대를 섬기다가 주님께 가기 위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5000.html